

# 황홀한 새 거리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

## - 새 집들이 경사로 흥성이는 송화거리에서 -

### 80층초고층살림집에서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변화가로 훌륭히 일떠선 송화거리에서 새 집들이 경사를 맞이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원신의 로고가 력력히 어려있는 인민의 리상거리 그 어디에나 격정과 환희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새 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주민공들의 복반은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해 송화거리를 찾은 우리의 눈앞에 주체 건축의 발전면모가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대로는 휘황찬란한 레일에 이어진 직선주도로만 안겨주고 즐기게 늘어난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은 반복이 주렁지는 이 땅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는 메인 건물들의 립면형성과 독특한 결합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의 눈가에 창공높이 터져오르는 추모를 형성한 아이아하게 치솟은 80층초고층살림집이 비껴들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리로 향하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로동당시대의 건설의 대변영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80층초고층살림집의 맨 윗층에서 누가 살고있을가 하는 호기심에서였다.

승강기를 타고 80층에 올라 1호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한 녀성이 우리를 반겨 맞아왔다. 평양통신기계공장 로동자 김선남의 안내 리영옥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집안에 들어섰다.

《경에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저희 부부에게 훌륭한 새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홀러가는 구름도 금시 손으로 잡을것만 같은 80층 초고층살림집의 배란다에서 서서 나날이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기술어오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졌다.

인민들에게 50년, 100년후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새 거리를 안겨주시려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해주신 1만세대 살림집설계형성안만 해도 1 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1 000여건의 형성안! 이것을 어찌 하나의 수자라고만 하랴.

바로 여기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현신의 세계,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이 력력히 비껴있거니.

그 숭고한 인민사랑에 인민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 길을 이어갔다.

본시기자 홍범식

이 눈부러가 모자라게 펼쳐졌다.

시련속에서도 나날이 커만 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가슴 벅함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의 귀전에 리영옥녀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에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저희 부부에게 훌륭한 새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홀러가는 구름도 금시 손으로 잡을것만 같은 80층 초고층살림집의 배란다에서 서서 나날이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기술어오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졌다.

인민들에게 50년, 100년후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새 거리를 안겨주시려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해주신 1만세대 살림집설계형성안만 해도 1 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1 000여건의 형성안! 이것을 어찌 하나의 수자라고만 하랴.

바로 여기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현신의 세계,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이 력력히 비껴있거니.

그 숭고한 인민사랑에 인민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 길을 이어갔다.

본시기자 홍범식



## 편리한 생활 환경

회화한 대건축군을 펼친 송화거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초고층살림집과 다양한 곡선미, 현대감이 넘치는 초고층살림집들만이 아니다.

80층초고층살림집에 조성한 기단층과 여러 살림집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형성한 특색있는 형식의 기단층들에는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송신종합상점, 송화종합상점, 장산관 송화분점을 비롯한 상점들과 식당들, 약국, 꽃방, 사진관, 정보기술교류소, 건재전시장 등 다양한 봉사시설들 그리고 목욕탕,

리리관을 비롯한 문화후생 시설들은 이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생활상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주고있다.

이 거리에서 사는 주민들은 아무때나 승강기를 타고 아파트 밑에 있는 봉사망들에 내려와 필요한 온갖 봉사물을 받을수 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상점들에는 건축재, 공업품, 식료품, 기공구,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상품들이 꽉 차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그런가 하면 시원하게 뻗은 대도로를 가로질러 송신, 송화거리를 편리하게 연결해

주는 고가다리에도 기념품매대와 버섯매대, 화장품매대, 책방 등 봉사망들이 갖추어져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송화거리의 원림록화도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거리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문명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고있다.

살림집들의 지붕과 기단층들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 지피식물들이 뿌리를 내리었고 넓은 공지에 꾸려진 인공못과 인공폭포는 오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본시기자 김철

새집을 받아안은 골짜기는 행복에 울고있는 주인공들을 찾아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송신2동 8호동 5현관 4층 4호를 찾았다.

햇빛이 비쳐드는 넓은 살림방, 밝고 깔끔한 부엌, 물가열기가 설치된 세면장... 어느 곳을 보나 나무랄데가 없는 행복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 길을 이어갔다.

우리에게 세대주인 문수물

이 모든것들이 한데 어울려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답고 환할한 경관을 펼치니 송화거리의 보경치를 더한껏 절제 해주는것같다.

새파란 잔디들이 돌아나고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난 살림집회돌사이의 야외공원들에도 여러 종류의 유희기구들이 있어 여기서 좋아라 뛰노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볼수 있다.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솟아오른 송화거리에서 기쁨과 량만의 웃음꽃을 활짝 피워가는 이곳 주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이야말로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가 펼쳐놓은 또 하나의 사회주의문명의 참모습이다.

본시기자 김철

나라의 령도자께서 다녀가신 집을 받아안음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 좋아 온 방안이 좀더하게 뛰노는 어린 자식의 모습을 기

성도 살림방마다에 친어버이의 정이 따스히 스며들어 집 문턱을 섰듯 넘어설수 없었던 이야기가하는것이였다.

이것이 어찌 이들만의 심정이다.

참으로 새 거리,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은 출신도 직업도 경력도 서로 다르지만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고 행복만을 안겨주는 바쳐가며 번 돈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궁핍같은 새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받은 그날 온 가족이 격정의 눈물을 쏟았

다한 송신1동 7호동에 입사한 리영옥녀성을 비롯하여 송화거리에서 일떠선 사회주의변화에 새살림을 편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참으로 새 거리,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은 출신도 직업도 경력도 서로 다르지만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고 행복만을 안겨주는 바쳐가며 번 돈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궁핍같은 새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받은 그날 온 가족이 격정의 눈물을 쏟았

본시기자 김혜성

## 한없는 고마움, 총성의 일념

이를 한 날 이사집을 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집안의 어기저기를 돌아보고 쓰다듬으며 경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시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나같은 평범한 로동자가

행복을 안겨주신 경에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이 너무 고마와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날마다 커만 가는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에 넘쳐있습니다.》

리정남의 어머니 김영숙녀

이라고 하랴.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한생을 바쳐가며 번 돈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궁핍같은 새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받은 그날 온 가족이 격정의 눈물을 쏟았

이라고 하랴.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한생을 바쳐가며 번 돈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궁핍같은 새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받은 그날 온 가족이 격정의 눈물을 쏟았



## 《우리도 저런 곳에서 살아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리념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송화거리와 보통강안다락식주책구가 불과 1년만에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변화가 일떠서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준공하여 새 집들이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에서 경탄과 부러움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아래의 글들은 남조선의 언론들과 인터넷에 실린 반향중 일부이다.

《북은 2021년 1월 당 제8차대회때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계획을 제시한 뒤 해마다 1만세대씩 살림집을 짓기로 하고 그 첫 사례로 지난해에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과 이어 보통강안다락식주책구 800세대 살림집건설을 착공하였다. 김정은총비서는 송신, 송화지구 건물들의 높낮이조절과 고가다리설치, 건물배치 등 1 000여건의 형성안을 직접 제시하고 지도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김정은총비서가 북의 건축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로 되는 호화주택구를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고 건설 전 과정을 직접 조직지휘하였다고 한다.》

《김정은총비서가 인민을 위해 호화주택구건설의 직접적인 발기자,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어 설계로부터 공사전반에 이르는 일체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고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자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부동산문제, 주택난 문제는 누가 풀어주는가. 주택건설은 북이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생활향상을 대표하는 력점사업이라고 한다.》

《80층이면 못해도 3~4년 정도는 걸려야 하였는데 1년안에 지었으니 세계신기록이 아닌가. 1년만에 작은 신도시 하나를 완성하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평양시내의 보통강변에 조성된 다락식주책구는 위치도 명당자리지만 경관은 물론 실내장식과 구조 등에서 최근 북이 새로 건설한 주택들보다 상당히 많은 품을 들인것이 알린다. 위성사진으로 보아도 보통강안다락식주책구는 류경호텔을

마주볼수 있는 위치에 있고 뒤쪽으로는 북의 최고주권기관인 만수대의사당이 자리잡고있으며 그옆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언덕이 있다. 또 주택구의 옆에는 고구려시대의 유적지인 보통문이 있는데 이곳은 평양의 명소인 창광거리와 연결된다. 이 주택구는 건설이 진행될 때부터 그 위치가 평양시의 핵심지역이때문에 커다란 주목을 받아왔다.》

《보통강안다락식주책구에는 대체로 낮은 층의 살림집들이 계단식으로 되어있다. 다층형구조에 집집마다 야외로대가 마련되어있어 마치 단독주택에 온것같은 느낌을 준다. 살림집내부에 침대와 소파, 식탁 등 가구와 조명등도 잘 갖추어져 있다.》

《보통강안다락식주책구는 마치 부유한 (호화촌)과 같은 느낌을 준다. 북이 이처럼 수도의 주요위치에 고급주택구를 조성하고 태양절을 맞으며 준공까지 진행하여 노력혁신사, 공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

는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송화거리 살림집들에 대해서도 《건물외벽에 연분홍색 또는 녹색, 주황색 등 대단히 화려하고 파란색 색상을 리용하고있으며 이러한 색들을 실내공간의 벽과 천정에 많이 사용하여 훌륭하게 완공하였다. 실내조명의 수자가 많아지고 부엌의 찬장과 조리대, 위생실의 변기, 세면장의 욕조 등 마감재들이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이다.》고 보도 하였다.

인터넷에도 《북도 집짓는데 우리는 못했을하다. 《우리는 집을 구하려고 령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데 북은 공짜로 집을 준다.》, 《북사람들 정말 좋겠다. 저런 고급아파트에서 다 살고.》, 《북은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웃으면서 새 아파트도 짓고 정말 잘사네.》, 《저런 천국이 존재한다는것이 신기하다.》, 《우리는 저런 곳에서 살아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 참에 다 북에 가자.》라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오르고있다.

본시기자 김춘경

